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서 열린다

총회서 개최지 최종 선정

지난해부터 대륙별로 공략 세계태권도대회 이어 유치 고용창출 등 부가가치 기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북도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는 17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16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한민국 전북도 새만금'을 2023년 제 25회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32년 만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뒤 폴란드 그단스크(GDANSK)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607대 365로 대회 유치를 성공했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아랍(19개국)을 비롯해 아프리카(40개국)와 남미(34개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전북도 유치단'을 구성, 대륙별로 집중 공략한 점이 유치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도는 민선 6기 들어 지난 2015년



17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폴란드 그단스크를 제치고 전북 새만금의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가 확정되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유치단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잼버리대회까지 국가 간 경쟁을 뚫고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게 됐다.

전북도는 대회의 생산 유발효과가 800억원, 부가가치효과는 300억원, 고용창출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회는 'Draw your Dream'이란 주제

로 오는 2023년 8월 전북 부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서 12일간 열린다.

이 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다.

새만금 세계잼버리장은 9.9㎞(300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대집회장과 전시관, 편의시설을 가운데 두고 세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아영공간이 둘러싸는 방식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중앙정부와 함께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구축에 속도를 높여 대한민국과 전북도의 미래를 세계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세계 청소년들과 글로벌 역량 키워요"

잼버리 대회란

잼버리 대회는 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다. 4년마다 열리며 민족과 문화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을 초월하여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유쾌한 잔치', '즐거움 놀이'를 어원으로 하는 잼버리(jamboree) 대회는 스카우트의 창시자 베이든포우웰이 1920년 영국의 런던 올림픽에서 개최한 제1회 국제야영대회를 '제1회 국제잼버리'라고 명명한 것이 효시가 됐다. 당시 대회에는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내에서 열렸다.

이후 8회 때 처음으로 유럽 밖으로 나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개최됐고 아시아(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으로 대회 개최된 것은 10회째였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고성에서 처음으로 제17회 세계잼버리가 열렸다. 세계에서는 14번째,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일본에 이은 3번째 대회 개최국이 됐다.



당시 대회 주제는 '세계는 하나'(Many Lands, One World).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됐다.

나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14~18세의 스카우트 대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참가한다.

각 대표단들은 아영생활을 하면서 피부색·종교·언어를 초월해 잼버리 대회의 각종 행사와 과정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4회 대회는 2019년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리고 이후 제25회 대회인 새만금에는 대회 최대인 167개국 5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산·들·바다·갯벌 어우러져 최적지 평가

선정 배경과 기대효과

국내 생산 유발 효과 796억원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새만금지구는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km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새로 만든 땅(409㎢·1억2000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한다.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1991년 11월 착공한 후 2006년 4월 '바다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세계 최장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이 방조제는 세계 최장인 네덜란드 주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km 더 길다. 기네스에 공식 등재됐다. 방조제는 밑넓이가 평균 290m(최대 535m), 높이가 36m(최대 54m)에 달하는 대형 둑이다.

이번 대회는 부안 방면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의 아영지 9.9㎞(300만 평)에

서 치러진다. 인천공항에서 3시간, 김포·광주공항에서 1시간 거리로, 군산 도심이나 군산공항에서는 30분이면 닿는다.

부안 방면의 아영장은 내빈산 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뽐내고 인근 군산은 근대문화역사 도시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다.

새만금지구는 세계 청소년 5만여 명을 한꺼번에 겨냥할 수 있을 만큼 광활한 데다 산, 들, 바다, 갯벌이 한데 어우러져 잼버리대회의 최적지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다는 게 전북도와 군산시 설명이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잼버리 개최 기간에 발생하는 지출비용이 100% 전북도로 투입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총 796억원이며, 이 가운데 전북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고용유발 효과는 1054명(전북 804명)으로 기대되고 부가가치 유발도 293억원(전북 203억원)으로 예상됐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장흥 원목표고버섯차 첫 중국 수출

정남진장흥농협

장흥 대표 특산물인 원목 표고버섯을 가공한 장흥표고차가 중국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

17일 정남진장흥농협에 따르면 장흥 표고차 첫 중국 수출 물량은 3만4천병, 16t으로 조만간 인천항에서 선적돼 중국으로 출발한다.

장흥표고차는 중국 내 500여개 매장에서 선을 보일 예정이다.

정남진장흥농협은 NH농협무역과 협조, 중국 수출길을 열었다.

정남진장흥농협측은 원목표고버섯 판매 활성화를 위해 수출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가공 생산해 해외시장개척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해 표고버섯을 홍콩과 일본 등으로 8억원어치 수출했고 올해 홍콩 바이어와 연간 35t(150만달러·약 17억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표고버섯을 대중화하기 위해 표고 음료, 표고차, 표고 조미료 등 가공상품을 개발했고, 표고버섯 소비촉진과 판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음식문화로 관광활성화 적극 나설 것"



'정읍 음식관광활성화' 보고회

정읍시는 17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2017년 정읍시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개발한 귀리떡갈비, 쌍화차묵은지삼합, 사과맥주 등 '달콤미라 3종'이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중인 과제 등이 논의됐다.

정읍시는 용역을 통해 대표음식 3종과 곱창은 부식상품 5종을 최종 선정, 지역 대표 음식 전문점과 맛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음식문화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교육청,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

내일 전주대 JJ아트홀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주대 JJ아트홀에서 수시 지원전략 및 입학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 등 1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에는 강세웅 전북대입지원단 팀장이 전북지역 대학과 교대, 전남대

를 비롯한 거점국립대 등에 대한 유형별 학과 탐색 방법과 수시 지원전략을 설명한다.

최영진 대교협 대표강사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입 수시 주요사항을 분석하고 지원전략을 안내한다.

참석자들에게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진학지도 길잡이 등 4종의 수시 자료집을 제공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읍에서 5분거리 대지 1302㎡ 마을도 좋음 7천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동계이트부근 전 2192㎡ 다음달 가능 1억1500
- 완도 약산면 옥암리 해수욕장접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완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17㎡ 팬션용 주택과 누사베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별장용주택 화순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평정도 사용 주택 600평 3억3천 상당
- 남구 서동 2층주택 대지 125㎡ 건물 124㎡ 임대 195천 월5 매도 2억1500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완도 고금면 땅 2672㎡ 주택 137㎡ 전원생활적합 1억8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 2종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고흥 동일면 6891㎡ 펜션있고 요양시설·연수원 등 적합 10억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장적합 담양 봉산면 재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 금성면 42900여㎡ 전원주택단지 적합 도로로움 34억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부근 대로변 대지 822㎡ 건물 344㎡ 18억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진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우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물 334㎡ 건물 임대중음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천
- 영암 산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사가 2억 3천 매도 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군, 비금도-팻섬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산 3, 4, 5, 6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 관리지역

■ 무인도, 육지에서 1km 지점

■ 향후 개발가치 100억이상, 투자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 2억 + 기타 부동산과 교환가

■ 주인공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